

10. 풍성한 삶의 원리: 인생의 위대함은 헌신에서 온다!

- 인생의 가장 위대한 순간 -

본문: 다니엘 3: 16-18

16.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17. 만일 그걸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쯔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 시겜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18.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음 아옵소서

16. Shadrach, Meshach and Abednego replied to the king, "O Nebuchadnezzar, we do not need to defend ourselves before you in this matter.

17. If we are thrown into the blazing furnace, the God we serve is able to save us from it, and

18. But even if he does not, we want you to know, O king, that we will not serve your gods or worship the image of gold you have set up."

헌신이란?

오늘 말씀의 주제는 '헌신'입니다. 말 그대로 헌신이란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몸을 드린다는 것은 죽도록 내버려둔다 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헌신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가장 명확한 이유는 그것이 그리스도를 닮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내어드릴 때, 가장 큰 유익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경건함'입니다. 왜 경건이 유익할까요? 우리는 경건함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적 유익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게리 토마스는 그의 책 [일상 영성]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영적으로 말해서, 작은 맡기는 행위 하나가 1년 치의 외적 훈련보다 더 유익할 수 있다. 금식하는 사람, 즉 자신의 식욕이 과도히 탐하는 모든 것을 금하는 사람은 좋은 일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자신의 욕심과 뜻을 금식하고 하나님의 뜻만 양식으로 삼는 그리스도인은 훨씬 좋은 일을 하는 것이다."

이런 헌신의 시간은 우리 인생의 중요한 '결단'의 때에 찾아옵니다.

'풍성한 삶'이 헌신의 삶을 통해 온다는 것을 우리는 다니엘의 세친구의 이야기를 통해 보게 될 것입니다.

헌신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내 몸을 다 내어줘서 이룰만한 가치가 있을 때에 그렇지 않을까요?

‘포기할 수 없는 가치’ 말입니다.

제가 세브란스 발전위원이라는 이름으로 어떤 행사에 참여해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무엇보다 세브란스라는 이름으로 세워진 병원을 발전시키기 위해 전문가들로부터 조언을 받고 새롭게 발전계획을 세워나가는데, 첫째가 ‘세브란스의 정신’으로 돌아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세브란스씨의 도움으로 세워진 이 병원은 선교사에 의해 기독교정신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병원을 보니, 그 정신이 사라져버린 것이 위기라고 느낀 것이죠.

그래서 병원 엘리베이터와 병동 곳곳에 계속해서 찬송가를 틀어 놓았습니다.

수술실에 들어가는 벽과 천정에는 성경구절이 적혀져 있습니다.

얼핏 생각해도 많은 반대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기독교 국가도 아닌데, 기독교인들 보다는 비 기독교인들이 많은 나라에서 ‘이 병원은 그리스 천 병원이다’라고 천명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병원이 포기할 수 없는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가 확실해 지니 그렇게 바꿀 수 있지 않았을까요?

물론 이 병원이 수익을 내는데 최선의 방법으로 택한 것이 ‘기독교 정신’이었겠지만,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바로 ‘헌신’이 아닐까요?

저는 ‘풍성함’이란 우리가 추구하는 이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가치를 부여잡고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다니엘과 세친구가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면서 일어났던 일이죠. 익히 아는 것처럼 다니엘과 세 친구는 단순한 포로가 아니라, 바벨론에서 고위 관리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엘리트들로 키우기 위해 데리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바벨론에서 고위 공직자가 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였을까요? 바벨론의 정신을 가진 사람들로 만드는 것이 아니었을까요? 그러니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도록 해야 정신을 지배하지 않을까요? 다니엘 3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잘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 하나이다

이런 상황에서 다니엘과 세친구가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 어떤 의미였는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그 결과를 알고 있는 상황이니 말입니다.

11절 말씀.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상황에서 다니엘의 세친구가 취한 행동은 헌신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첫째, 헌신은 기꺼이 외롭게 살겠다는 의지입니다.

따라서 헌신하는 자들은 자신의 삶에 대하여 구차하게 변명하지 않습니다.

16절 말씀.

16.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이 부분에 대하여 NIV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O Nebuchadnezzar, we do not need to defend ourselves before you in this matter.

제 생각에는 영어성경의 표현이 훨씬 이 상황을 잘 설명해주고 있는 듯합니다.

왕 앞에서 자신들이 행한 일에 대하여 ‘변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차하게 목숨을 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들이 하는 일에 대한 확신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풍성함’이 느껴지지 않나요?

사실 제일 구차한 인생이 ‘변명’하는 삶이죠. 변명한다는 것은 자신의 삶에 대해 별로 자신이 없다는 뜻이 있다는 것이 아닐까요?

외로운 길을 가겠다는 것입니다.

헌신하는 것은,

헌신을 해야 하는 시기는 분명히 우리 인생에 있어서 결전(決戰)의 시기입니다. 결전이라는 말은 아주 중요할 뿐 아니라, 고비가 되는 전쟁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사건이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 말씀의 주인공은 바로 하나님께 헌신하므로 당대의 “왕따”가 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바로 인생의 “가장 위대한 순간”을 맞이했던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결정적인 헌신이 인생을 바꾸어 놓았던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로 알려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유대로부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사 포로들과는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노예로 끌려온 사람들이 아니라 **선택되어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사람에게 선택되어 왔으나, 오히려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니엘 1장 3-5에 보면,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명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의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모든 재주를 통달하며 지식이 구비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모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방언을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자기의 진미라 자기의 마시는 포도주에서 그들의 날마다 쓸 것을 주어 삼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이는 그 후에 그들로 왕의 앞에 모셔 서게 하려 함이었더라.

이들은 가만히 있어도 인생의 장래가 보장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미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모든 사람들의 관심과 축복 속에, 아니 많은 사람들이 장래를 내다보고 찾아와서 아부를 해야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삼년만 지나면 왕이 시키는 일을 할 수 있는 정부의 고위직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하지요!

이들은 늘 혼자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유는 이들이 늘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세상의 조류와 자신들에게 주어진 환경에 따라 산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익과 쾌락을 위하여 양심과 타협하고 사회적, 종교적 풍조를 따르는 것이 자연스러운 때에, 진리와 신성함을 따라 산다는 것은 분명히 어려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디모데후서 4: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라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니

이러한 외로움, "혼자"라는 고독감을 느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단 하나, 그의 삶이 하나님을 향하여 헌신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헌신한다는 것은 혼자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시냇말로 "왕따"가 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것은 요즘 세상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미 확실하게 예견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험악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늘 외로울 수밖에 없는 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생을 헌신한다는 것은 늘 좁은 길을 따라 걷는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외로운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에 풍성함이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를 읽으면서 나는 꼭 이렇게 살아가리라 다짐하면서, 내가 처음으로 목회를 시작하던 순간에 했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한 송이 이름 없는 들꽃으로"

한 송이 이름 없는 들꽃으로 피었다가 지리라

바람으로 피었다가 바람으로 지리라

누가 일부러 다가와 허리 굽혀 향기를 맡아 준다면 고맙고

황혼의 어두운 산그늘만이 찾아오는 유일한 손님이어도 또한 고맙다
홀로 있으며 향기는 더욱 곱다
하늘 아래 있어 새벽이슬 받고 땅의 심장에 뿌리박아 숨을 쉬니
다시 더 무엇을 바라리오
있는 것 가지고 남김없이 꽃 피우고 돌아가는 바람 편에 말을 전하리라
빈들에 꽃이 피는 것은
보아주는 이 없어도 넉넉하게 피는 것은
한평생 홀로 견딘 이 아픔의 비밀로 미련 없는 까만 씨앗 하나 남기려 함이라고
한 송이 이름 없는 들꽃으로 피었다가 지리라
끝내 이름 없는 들꽃으로 지리라

둘째, 헌신하는 삶은 주목의 대상이 됩니다.

확신 있는 삶은 우리를 헌신으로 인도하며, 확신에 찬 삶이야말로 우리를 풍성하게 만들어 줍니다. 문제는 확신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세상이 우리를 주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17절 말씀.

17. 만일 그걸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견져내 시켰고 왕의 손에서도 견져내시리이다.

저에게 은혜가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었습니다.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능히 견져내실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입니다.

이들 세 명의 청년이 지금 주의의 사람들의 눈에 돋보이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들의 믿음이 특출하기 때문입니다. 어디든 특별한 사람은 눈에 띄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 놓고 살아갈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지 보자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의 삶에 주목할 뿐 아니라, 나도 이제 내 삶을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언젠가 제가 설교하면서 교인들에게 그런 제안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을 시킬 때,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요, 짬뽕하나 주세요!” 라고 말해 보라고 말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다니엘의 세 친구의 돋보이는 믿음이 그들이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 아직은 부정적인 의미로 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들이 누구이건대, 왕이 주는 음식도 먹지 아니하고 살아가는가?

이들은 누구이건대, 위대한 제국을 건설한 느브갓네살왕이 금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라고 하는데, 뻗뻗하게 서 있는가?

세상이 이들을 주목해 보기 시작합니다.

헌신자들에게 가장 힘든 것은 ‘주목’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다니엘서 3:13에 보니까:

느브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명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이들의 헌신에 화가 난 느브갓네살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단 3장 14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여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니 짐짓 그리하였느냐

그렇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헌신을 질문으로 확인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그 신상에 엎드려 절할 기회를 주겠노라고 시험합니다. 이제 그 순간을 상상하며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용기와 결단의 순간을 보고 있지만, 그 순간이 오기까지 이런 과정이 있지 않았을까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까?

딱 한 번만 절 한다고 무엇이 해로우며, 신앙을 배신하는 것은 아닐 텐 데. . .

종종 이런 생각도 가능할까요?

“이 시간에 구두끈을 매었으면 참 좋았겠다. 그러면 머리를 굽혀 절할 수 있다. 신상에 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구두끈을 매기 위해서 말이다”

결국 이 현실의 기로에서 결단을 내려야 하는 것은 우리들 자신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것은 헌신에 대한 결정은 나만의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위해 기도를 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나에게 여러 가지로 충고를 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단의 몫은 결국 나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결단의 기로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것은 결단에 대한 “값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있어서 그 헌신의 결단이 풀무불에 던지우는 것이라 할지라도. . .

셋째, 우리의 헌신으로 하나님이 드러나는 영광이 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은 자신들이 한 행동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든 ‘최선’임을 믿는다는 고백입니다. 이런 확신이 없다면 어떻게 헌신될 수 있겠습니까?

헌신된 삶이 풍성한 것은 기꺼이 그 삶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18. 그리 아니하시리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죄송하지만 저에게는 영어성경이 훨씬 와 닿습니다.

18. But even if he does not, we want you to know, O king, that we will not serve your gods or worship the image of gold you have set up."

이 부분입니다. 'we want you to know'라는 부분에서 말이죠.

당신이 알기를 원하는 것이 있는데, '당신의 신들을 섬기지도 절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16절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세요.

변명할 필요는 없지만 당신이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변명하는 인생이 아니라, 자신의 확신을 선포하는 삶이 얼마나 풍성한가요?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무책임한 사람에게 우리의 일을 내어준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우리의 헌신은 인생의 포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신뢰에서 나오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죽음을 불사했던 이유는 포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신뢰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에 관한 차원이기도 합니다.

무엇이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언젠가 가족들과 함께 토론토에 있는 CN Tower에 갔을 때의 일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높다고 하는 곳인데 맨 꼭대기에 올라가면 바닥이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정말 그 위에 서면 오금이 저리다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어른들은 쉽게 그 유리위에서 걷지 못하는데, 아이들은 뛰고 돌아다니면서 별로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감히 유리위에 서지 못한 어른들은 유리를 잇는 철재 가로막을 밟고 조심스럽게 걸어 다닙니다.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아이들은 쉽게 믿으니 겁이 나지 않지만, 많이 속아 본 어른들은 믿음을 가지고 쉽게 발은 내딛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잠시나마 거기에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 보다 먼저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올라왔을 텐데,

그 많은 사람들이 밟았어도 무너지지 않았는데,

그 곳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 봐야, 보지 못했던 세상을 보게 될 텐데,

하나님은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의 삶과 인류의 역사를 통하여 증명해 주셨습니다.

풀무 불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를 건져내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당신의 자녀들을 보호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지요.

문제는 우리가 지금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할 각오가 되어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18절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헌신은 결과와는 무관하게 의롭게 행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의미가 있다는 것.

다른 하나는, 헌신이란 우리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남을 기대하는 것에 충분한 의미가 있다는 것.

하나님은 결과에 상관하지 않고 우리가 의를 행하기를 기대하시는 분이란 사실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아주 중요한 정의가 될 듯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헌신된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 선택받기 위한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의 헌신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삶을 살아가는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헌신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은사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뛰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준수한 용모와 총명을 갖춘 젊은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사용하신 것은 그런 조건들 때문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이들의 삶이 풍성할 수 있었던 것은 택함을 받은 자로 헌신이 증명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인생보다 더 풍성한 삶이 있을까요?

헌신은 선택의 조건이 아니라 선택의 결과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였다’ 라고 되어 있는데, 다니엘이 뜻을 정하는 순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하나님을 섬기기로 한가지로 뜻을 정하였고 이것이야말로 위대한 헌신이었습니다. 그 때 하나님은 그들을 들어 올리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헌신을 보시고 그들을 축복하셨습니다.

무엇보다 큰 축복은 헌신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 불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의 살아가심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가장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습니다.

가끔 우리는 “亂世가 英雄을 만든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헌신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우리 인생의 가장 극적이 결단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여기에서 더욱 더 굉장한 사실은 이들의 헌신을 통하여 이 세상의 왕에게 감동을 주었다는 사실이지요.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이 드러나는 순간에 세상을 우리를 보고 감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3:28-29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가로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 사자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 몸을 버려서 왕의 명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 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방언하는 자가 무릇 사드락과 메사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설만히 말하거든 그 몸을 조개고 그 집으로 거류터를 삼을 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하고

이거 얼마나 굉장한 일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풍성함'이라는 단어를 떠 올리게 됩니다.

풍성함은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우리 인생의 복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말씀을 한 가지 이야기로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나는 최근에 내가 가장 존경하는 요한 웨슬리에 대해 읽었다. 요한 웨슬 리가 신대륙으로 복음전도 사역을 위해 떠나는 조지라는 친구를 격려하는 편지를 썼다. "사랑하는 조지, 드디어 자네가 미국으로 떠날 때가 왔네. 조지, 나는 자네를 위대한 미국 대륙으로 놓아주겠네. 광활한 태양의 얼굴에 자네의 메시지를 써넣고, 그리고 할 수 있는 선한 모든 일을 하게나." 나는 웨슬리의 이 스스럼없는 구절이 좋다. "나는 자네를 놓아주겠네."

헌신을 하게 될 때 당신은 자유로워질 것이며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위해 놓임 받게 될 것이다.

<열매맺는 지도자, p188>

헌신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자유롭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헌신은 당신을 묶임에서 벗어나게 하는 결정적 원리입니다.

당신이 묶임에서 풀려날 때, 한없는 가능성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